

다른경제의 희망 : 사회적경제, 연대의 경제, 민중경제

2011년 3월

김신양
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
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

I. 사회적 경제

Social economy
Economie solidaire
Economia popular

Ch I. 사회적경제-개념

1. 정의방식

- 좁은 의미: 법적지위 & 운영원리에 따른 정의
 - 20세기 들어 경제부문으로 축소된 영역
- 넓은 의미(역사적 접근): 기존 경제학 및 경제활동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, 사상, 실천
 - 기존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학문(19C)
 - 연대의 경제, 민중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대안경제사상 및 실천활동(20C 후반)

1.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

- 법적지위: 협동조합, 공제조합, 결사체 (+ 재단)
 - 프랑스 RECMA지가 중심
 -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재단을 포함(1989)
- 운영원리: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기업 및 조직의 공통점
 - 자끄 드푸르니교수의 제안(1992)으로 왈롱지방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채택 후 보편적으로 인정

■ 운영원리에 따른 정의

- 경제를 제한적인 요구와 제한적인 자원 사이의 결정이라는 경제학으로서의 형식적인 관점이 아닌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의

-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이나 지역사회에의 봉사
- 자율적 운영
-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
- 잉여나 소득의 분배에서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

⇒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한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 핵심

2.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정의

■ 앙리 데로쉬(Henri Desroche 1983)

-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협동조합, 공제조합, 결사체
- 이 외에 노동자 참여 기업, 지자체와의 파트너관계에 있는 복합기업, 일정정도의 자주관리 체계를 갖는 공기업, 노조와의 공조관계에 있는 사기업까지 포함
- 약점 : 법적인 지위만을 고려

■ 끌로드 비에네(Claude Vienney 1994)

첫째.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기업으로 이루어짐

둘째.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잇는 기본적인 규칙 : 사람들의 집단에 관계된 규칙(평등), 참여자와 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(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요소), 기업과 참여자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(이용에 따른 성과의 배분), 기업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(집단적인 소유)

약점 : 결사체를 배제하며 협동조합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전형으로 삼고,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

Ch II. 사회적 경제-사상과 실천

1. 선구자들의 사상

■ 결사체의 이상

-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규합하는 다양한 규모의 구조, 조직 => 조직 방식이자 이념
- 오웬(R. Owen) : 노동자들의 정치, 사회적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및 노동과 생산공동체의 실험.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, 노동조합 조직에 기여

“협동이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플라톤과 토마스모어의 전통을 잇는 공산주의이다”

➤ 생시몽(Saint-Simon) : 시민의 사회화 수단

“결사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상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”

➤ 푸리에(Fourier): 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인 환경을 바꾸는 수단

“결사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인류의 모든 경제적, 정신적 힘을 모으는 것. 정서적이고 지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공동의 행동을 위하여 모이는 것”

➤ 뷔세(Buchez): 노동자생산결사체(노동자협동조합의 기원)

“노동자생산결사체를 통해 저기능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가능하게 하고, 장인들이 판매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” ->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및 협동 추구

➤ 밀(J. S. Mill): 결사체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노동관계의 종식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사고

“결사체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전통적 관계를 대신할 것이다”

2. 사회적경제의 조건: 필요의 조건과 집단적 정체성(운명공동체)

◆ 19세기: 막 태동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전으로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민, 노동자, 장인이 불평등과 탄압에 맞서 조직. 당시 노동계층의 기본적 욕구인 교육, 보건, 신용대출, 음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

⇒ 빈곤 및 탄압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집단적 의미를 가짐

⇒ 동일한 삶의 조건이 노동계층의 ‘집단적 정체성’ 형성

◆ 현대

-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지역, 종교, 가족의 붕괴

- 사회적 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져 빈곤 및 탄압뿐 아니라 가정폭력, 범죄, 교육에의 접근, 고립 및 소외 등의 문제로 확산

- 사회적 경제 운동은 사회적 결속의 구축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망을 가지고 공통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

⇒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믿음 회복

3. 사회적경제의 조건: 사회개혁의 유토피아

■ 저항과 협동을 통한 자유의 획득

- 빈곤 및 불평등, 탄압의 현실에 저항하고자 협동
→ 정체성 확인 → 보다 인간적인 경제와 정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유토피아 구상
-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며, 외적인 구속이 아닌 교육을 통해 형성

예) 19세기 캐나다 '노동자상호공제회사'의 경험:
단순한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조직을 넘어 노동자공동체 내 사회관계 강화

“모든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연대한다. 우리는 운명공동체이다”

Ch III. 다른경제와 시민사회 – 세계화의 두 흐름

1. 한계에 이른 자본주의 모델

- ◆ 경제외적인 영역에서 양산하는 비용문제와 탈기능
 - 기존의 경제성과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 위협
- ◆ 고질적 실업과 사회적 분리주의
 - 구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으로 복지국가 잠식
 -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생산주체로서의 인간의 유용성 쇠퇴

◆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이론

- 불가능한 완전한 경쟁 전제
- 발전의 질적인 측면 도외시
- 양극단의 대안 제시: 투자 or 소비, 보호주의 or 자유주의

⇒ 사회의 종합적인 기획 속에 경제를 통합하는 사고방식 필요
⇒ 시장중심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 필요

2. 세계화의 논리

-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 또는 금융의 논리로 주도
- 시장을 인간관계의 일반적 양식으로 확장
 -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 적용
- 민주적 조절양식 부정
 - 세계금융기관은 유엔에 속하지만 그들 자체 조직 외 어떤 이에게도, 어떤 조직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
 - 민주주의에 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'경제전문가'에 의존

■ 개발의 이름으로 환경파괴 및 인권유린

⇒ 새로운 개발모델 필요

■ 민주주의 수호 명분으로 전쟁 발발

■ 사회적 권리 위협

- 최저생활보장권 -> 근로복지(workfare)
- 노동권 -> 노동유연화

⇒ 모든 이들을 위한 권리존중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운동 형성

3. 다른(대안적) 세계화의 흐름

■ 저항운동의 시작

- 1999년 시애틀에서 반세계화운동 결집, 국제금융기구에 도전장
- 이념의 차이와 부문운동의 차이를 넘어 세계시민사회운동의 결집

■ 저항에서 대안으로

- 2002년 보르도 알레그르에서 세계사회포럼 개최
- 전세계 국가로 확산
- 세계시민운동형성
- 참여민주주의의 실험, 다른세계화를 위한 다른경제 전략(연대의 경제) 채택

4. 세계사회포럼과 연대의 경제

■ 연대의 경제는 경제(영역)와 사회(영역)간의 관계와 연관성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략을 겨냥하는 이념

-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적 수준의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컨셉 또는 과정
- 특정한 조직도, 특정한 운동도, 또 연합도 아닌 자유로운 '공간'
- 운동과 다양한 사회프로젝트가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표현됨
- 지역, 대륙, 전세계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행동계획 및 비전을 정의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

Ch IV. 다양한 형태의 대안경제 - 새로운 사상의 발흥

■ 새로운 개념의 등장

- 유럽의 경우 70년대부터 결사체를 중심으로 사회적배제에 맞선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'연대의 경제' 등장
- 남미의 경우 80년대부터 노동자, 농민집단을 중심으로 빈곤극복을 위한 자구적 '민중경제' 등장
-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, 공제조합 중심의 경제조직으로 축소
- 연대의 경제, 민중경제의 등장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제기

■ 사회적경제의 위기

- 제도에의 안주와 시민사회와의 단절,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로 인한 사업의 위기로 딜레마에 빠진 낡은 개념
- ‘사회적’ 의미를 가졌던 ‘공동소유’의 원칙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의미로 제한됨

⇒ 세계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

■ 사회적경제의 쇄신과 통합

-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부응하며 ‘사회적소유’로 지평 확장
- 유럽, 북미 : 결사체 중심의 연대의 경제와 결합하며 ‘사회적연대의 경제’로 통합
- 남미 : 자발성에 기초한 민중경제와 결합하며 민중적 연대의 경제로 통합
- 동아시아 :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개념 혼재
- 아프리카 : 마이크로크레딧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경제(비공식적 성격)

⇒ 사회적경제, 연대의경제는 다른세계화의 이념으로 존재

1. 대안경제 사상의 이론적 토대

■ 칼 폴라니(Karl Polanyi)의 발견

- 경제의 의미를 실질적(substantive) 의미와 형식적(formal) 의미로 구분
-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→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자율화는 정치적 계획임을 보여줌
“*시장은 자연의 적자가 아니라 정치의 서자다*”
- 경제의 통합 방식에는 호혜(Reciprocity), 재분배(Redistribution), 교환(Exchange)이 존재하며 각각의 원칙은 적합한 제도를 전제

■ 실질적 의미의 경제

- 자연과 인간에 생계 의존 →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
- ‘경제’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
- ⇒ 인간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연구 = 실질적 의미로서의 경제에 대한 연구

■ 형식적 의미의 경제

- 수단과 목적의 관계 : 수단의 부족이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합리적 행동에 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행위
-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‘시장’을 전제
- ⇒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 추구 → 이윤의 극대화로 발전

■ 경제의 통합 형태

- 호혜성 : 대칭적 집단의 상관관계 지점 간의 움직임.
- 재분배 : 중앙으로의 소유움직임과 중앙으로부터의 이동
- 교환 : 시장제도 하 주고받는 움직임

■ 설명

- 호혜성은 재분배와 교환을 종속된 방법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최상의 힘을 발휘
- 재분배는 모든 수준의 그룹을 통합
- 교환은 가격책정 시장체제에서 가능. 그 외부에서는 경제분석으로서의 관련성 상실

⇒ 각각의 통합형태는 경제의 발전단계를 의미하지 않음

■ 민주주의, 경제, 다원주의

- 파시즘 :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부동의 위계구조화된 경제체제를 위해 사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목적
- 과거 공산주의체제 :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 넓히려는 목적. 권리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시하며 생산수단의 소유의 변화를 경제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오류
- 자본주의 체제 : 경제의 실질적 의미의 배제 -> 경제=시장경제. 시장만능 = 자가조절하는 시장
- 다원주의 : 경제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자연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. 어떤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정하는 사회, 문화, 정치적 규칙 속에 경제를 복속

⇒ 플라니의 분석은 윤리적, 정치적 계획으로서의 대안경제사상의 토대 형성

2. 연대의 경제

■ 정의
시민의 참여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

■ 기원
19세기 초 르루(Leroux)의 연대에 기반한 노동자결사주의 중심의 우애의 경제

- 배경
- '영광의 30년' 이후 오일쇼크와 더불어 시작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
- 68년 5월혁명 이후 형성된 세대의 대안적 삶 모색
- 사회적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'근린서비스'개발, 자활지원을 위한 노동통합사회적기업, 연대금융 및 공정무역 등 새로운 시도의 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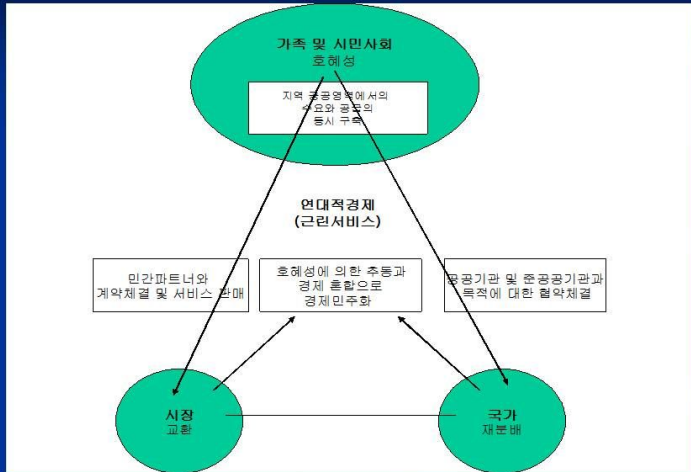
■ 운영원리

- 플라니의 경제통합원칙에 근거, 시민사회의 비시장비화폐 자원(호혜성), 비시장자원(재분배), 시장자원(교환)을 혼합
- 호혜성의 추동으로 경제영역에 참여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경제민주화 겨냥
- 수요와 공급의 동시 구축

■ 연대적 서비스 조직의 특성

- 지역사회에 필요한 욕구 발굴
-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직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단위 구성
- 지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서비스 수요자를 위하여 교환체계가 아닌 새로운 운영체계 형성
-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동원

■ 그린서비스(연대적 서비스) 개발



■ 특성

- 보통 비공식적인 구조로 존재
-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에서 활동의 근거 찾을

⇒ 호혜성과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관계의 구축을 통한 생존전략

■ 민중경제

- 고용/피고용 관계 부정(노동력의 상품화 반대)
- 지역전통이나 공동체관계에 기반

■ 비공식경제

- 고용주가 있으나 임금관계 부재
- 시장을 모방한 개인활동
- 시장활동이나 비합법적으로 존재(기업활동에 따른 의무 불이행)

3. 민중경제

■ 정의

- 자신의 노동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물질적·비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중조직에 의해 개발되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실천(Icaza & Triba)
- 주로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집단이 결사하여 다양한 방식에 따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생산,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활동(de França Filho)

■ 배경

- 불공정한 국제무역관계 및 강제적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장의 한계
-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한계

⇒ 민중의 자구적 대책

4. 대안경제와 경제의 복합성

■ 민주적 연대성을 통한 재분배와 호혜성의 시너지효과

- 호혜적 형태 :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동선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발적인 사회관계
- 재분배 형태 : 공권력에 의하여 사회결속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규범과 서비스

■ 재분배정책에 의한 호혜성의 확장

- 인간의 해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진정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개인과 집단의 실천이 법적 틀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발전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

⇒ 공공부문(국가)과 시민사회간의 협력의 필요성

5. 잠정적 결론

■ 대안경제와 국가

- 사회개혁 프로젝트로서 대안경제는 국가(공공부문)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시기
- 복지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사회불평등 완화
- 사회국가 모델의 발전으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

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민주적 조절양식

- 참여민주주의 및 여론민주주의의 확대
- 국가/시장 중심의 이분법 -> 국가/시장/시민사회의 균형으로 경제 민주화

Ch V. 사회적경제와 공공정책

1. 경제, 사회, 민주주의

■ 과거의 사회경제적 타협

- 시장과 국가의 분리, 보완관계
- 시장만이 유일한 부의 원동력이라는 논리에 기반
- 사회연대는 시장의 성과에 달려있음

■ 사회경제적 위기

-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민주사회 해체
-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을 조직할 새로운 원칙의 부재로 사회불평등 증가
-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국가의 조직 및 조절양식의 변화 요구
- 사회의 구성과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

■ 새로운 보편적 연대 형태의 필요

- 박애적 연대 :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민의 임무를 행하는 형태
- 열악한 계층과 특권층 간의 의존적 관계 : 수혜자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채무의식 형성

- 민주적 연대 : 사람들간의 권리의 평등에 기반

- 자유로운 시민의 자발적인 호혜 관계 : 자주적 조직,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를 통한 상호부조 서비스

■ 민주적 연대의 조건

- 호혜성 :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관계
- 강제성과 재분배 :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규범

2. 새로운 연대의 형성을 위한 사회변화

■ 정치와 경제

-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의 추구는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. 이를 위해
- ✓ 공공부문의 조절양식이 변화해야 하고
- ✓ 생산, 교환, 소비, 예금 활동에 민주적 원칙 도입

■ 사회적 경제와 제도

- 제도화의 주체: 제도의 변화에 기여 → 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
 - 제도화된 조직: 제도의 통제 대상 → 경제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
- ⇒ 저항과 창조의 결합